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성명서

2019년 5월 19일

대한민국 : 진정 민주주의를 사랑했던 서유진 선생 세상을 떠나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틀 전 한국 군사독재를 물리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서유진 선생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아시아 말로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서유진 선생은 진정으로 위대한 영혼을 가진 분이었고,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헌신과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우리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찼던 가식 없는 그와 일한 것은 대단한 영예였습니다.

저는 1998년경 광주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이 선포되었을 때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서유진 선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회의의 목적에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광주정신을 소개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광주민주항쟁의 역사 그리고 군사독재 하에 살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위대한 이야기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분들로부터 항쟁의 영웅들이 묻힌 5.18 구묘역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주요장소가 되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대부분 청년이었던 영웅들의 유해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도래한 후 신묘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유진 선생은 광주민주항쟁에 관한 비디오 영상도 여럿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이 발생하여 군대의 잔혹한 진압이 있었던 그 때, 항쟁의 소식은 서유진 선생의 삶의 여정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군부독재에 대항해 싸우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서유진 선생은 한국 외교관이나 정부 관료가 워싱턴 D.C.를 방문할 때마다 어떻게 백악관 앞에서

사유를 했는지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는 자국의 탄압에 불만을 가진 여러 국가 출신 시위자들이 어떻게 집회에서 함께 모여 서로 연대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유머감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가 해준 이야기 하나가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 모이던 시위자들 중에는 아이티에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이 와서 독재정부를 멸망시키겠지. 그 후에 나라를 재건하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유진 선생은 그러자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다른 아이티 사람에게 “아이티가 만약 이겨버리면 어쩔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머리 속에는 한국 국민들을 대신해 오랜 세월동안 투쟁하며 쌓인 일화로 가득했습니다.

군부독재에 대항하던 저명한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서유진 선생은 그분 자택에서 일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마침내 이기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서유진 선생은 군사 독재와 같은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해낸 민중의 힘의 결과를 목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역사적 모범사례를 특히 아시아 민중들에게 알리려는 열망을 가졌고, 이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도록 격려했습니다.

아시아인권헌장

서유진 선생은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5.18기념재단과 함께 착수한 아시아인권헌장(민중헌장)을 만드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1998년 헌장 선포식이 광주에서 진행되었던 것은 그의 덕분입니다.

서유진 선생은 여러 아시아 국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광주민주항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포부를 실행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스리랑카입니다. 서유진 선생은 1971년부터 수십 년 동안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강제 실종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스리랑카실종자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강제실종자기념비를 건립하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국제공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니곰보(Nigombo)시 스웨두와(Sweduwā)라는 곳에 있습니다. 매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이곳에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서유진 선생은 스리랑카에 고문이 널리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현지 파트너 단체와 함께 고문사건을 모니터링하였고 고문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서유진 선생은 대단한 조직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이 고문피해자모임을 결성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고문의 피해자들 27명이 콜롬보시 볼라스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였고, 언론이 이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신문사도 고문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상당한 분량으로 다루었고, 고문문제가 스리랑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문피해자 중에는 제랄드 페리리가 있었는데, 범죄와는 전혀 연관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잔혹한 고문을 받아 신장이 망가져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이 사건은 스리랑카 국내와 국제적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회복한 후 그는 고문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여 법원은 그 당시 고문피해자로서는 가장 많은 국가배상금을 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스리랑카 검찰청은 제랄드를 고문한 경찰관들을 새로 제정된 고문방지법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제랄드는 니곰보 고등법원에 피해자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증언을 앞둔 일주일 전에 고문 주동자였던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 버스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일련의 시위를 촉발하였고, 서유진 선생도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외국인임을 알아본 한 경찰관이 그에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묻자, 서유진 선생은 “나는 제랄드의 친구다. 나는 그의 살인에 항의하기 위해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랄드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졌던 많은 스리랑카 활동가들은 어려운 시기에 서유진 선생이 자신들 곁에 함께하는 것 자체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서유진 선생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거쳐 마침내 민주화를 성취했고, 이러한 경험을 다른 나라에도 알리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국주의를 폐타시키기는 큰 가치였던 이상주의의 시대가 탐욕스런 물질만능주의로 대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 캄보디아에 살기 시작한 때가 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캄보디아에 진료소를 세울 때 서유진 선생도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캄보디아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생활했고 필요한 물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나라의 어려운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캄보디아에서 병환으로 쓰러지자 광주의 지인들이 이를 알고 서유진 선생을 치료를 위해 광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매우 허약한 상태였고, 결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기집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유진 선생이 몰두했던 다른 한 가지는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아해하고 이를 위해 기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언을 따르는 청년들이 생겨났고, 수년간 헌신성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진 선생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광주가 민주주의로의 길을 열어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로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상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서유진 선생은 암울했던 시절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햇불을 높이 들었던 분으로 보기 드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햇불을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

아시아인권위원회

